

---

# 제64차 ICSB 총회 출장 결과보고

- 이집트(카이로), 오만(무스카트) -

---

2019. 7.

**K-BIZ** 중소기업중앙회

## □ 출장목적

- 세계중소기업협의회(ICSB) 총회에서 기초연설 진행

**제64차 ICSB 총회 (The 64<sup>th</sup> ICSB World Congress)**

- 일자/장소: '19. 6. 17(월) ~ 21(금) / Royal Maxim Palace Kempinski Cairo
- 주 제 : The Future of Entrepreneurship: What's Next?
- 주 최 : ICSB, MCSBE(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증동학회)

-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진행

**A Seminar on "Advancing Korea-Egypt SME Cooperation"**

- 일자/장소: '19. 6. 19(수) / 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 (IDSC)
- 주 제 : Advancing Korea-Egypt SME Cooperation
- 주관/주최: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, Egyptian Cabinet IDSC, MSMEDA

-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
- 이집트·오만의 중기 정책 및 현지 진출 우리 중기 현황·애로사항 정보 수집

## □ 출장개요

- 출 장 자: 서승원 상근부회장, 국제통상부 김예민 대리
- 출장기간
  - 상근부회장: 2019. 6. 19(수) ~ 6. 23(일), 3박 5일
  - 실 무 자 : 2019. 6. 17(월) ~ 6. 23(일), 5박 7일
- 장 소 : 이집트(카이로), 오만(무스카트)

## □ 국가정보

이집트 (카이로)	항목	오만 (무스카트)
아랍어	언어	아랍어
\$3,005	1인당소득(명목)	\$19,170
94,798,827명 (19,500,000명, 20.6%)	인구(수도)	4,424,762명 (1,720,000명, 38.9%)
1,010,408km <sup>2</sup> (17,268km <sup>2</sup> )	면적(수도)	309,500km <sup>2</sup> (3,797km <sup>2</sup> )
이슬람(95%, 수니파), 기독교(5%)	종교	이슬람(이바디파75%, 수니파25%)
도착비자 (\$25)	비자정보	무비자 입국(60일)
220V, 50Hz (한국과 동일)	전압	220V, 50Hz (영국식 3핀형)
파운드(EGP)= 70원	화폐	레알(OMR)= 3,100원
한국보다 7시간 느림	시차	한국보다 5시간 느림
평균 최저 22℃, 최고 40℃	날씨(6월)	평균 최저 30℃, 최고 40℃

## □ 출장 일정

날짜	변경 일정				비고
	시간	상근부회장	시간	실무자	
17 (월)			13:40-18:45	인천→두바이	KE951(10h05m)
			21:55-23:45	두바이→카이로	EK925(3h50m)
			23:45-	공항 → 호텔	Royal Maxim P.K
18 (화)			10:00-11:50	ICSB 코리아 세션	Royal Maxim P.K
			10:00-10:20	축사	Amed Osman(ICSB)
			10:20-11:00	이집트 현황과 한국중세의 기회	신우용(KOTRA)
			11:00-11:30	중소기업 국제화	임채운 (서강대)
			11:30-12:00	중소벤처기업의 힘	배중태 (KAIST)
			12:00-12:30	기술혁신과 중소기업	유선열 (기보 연구소장)
			12:30-12:50	ICSB컨퍼런스와 광주경제	김지우 (광주광역시)
			13:00-14:30	오찬	ICSB 제공
			17:00-20:00	ICSB 총회 개막식	Al Manara ICC
		20:00-21:30	한국대표단 만찬	본회 제공	
19 (수)	16:20-21:40 *출발 3시간 지연	인천→두바이	09:00-18:30	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	Egypt IDSC
	21:40-05:10	두바이 공항대기	18:30-19:00	ICSB 총회	Royal Maxim P.K
*당일 인천발 두바이행 대한항공(KE951) 3시간 지연으로 예정된 두바이발 카이로행 에미레이트 경유편 탑승 불가 이에 두바이 공항 내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대기 후 두바이발 카이로행 이집트항공 탑승					
20 (목) 이집트	05:40-07:30	두바이→카이로	07:00-07:30	공항 영접	MS911(3h50m)
	08:00-08:30	공항 → 호텔			
	09:00-12:00	ICSB 총회 (부회장님 기조연설: 10:00~10:45)			Royal Maxim
	13:00-18:00	ICSB 총회			Palace Kempinski
	20:00-22:00	ICSB 사무국과의 간담			
	22:00-23:00	호텔 → 공항			
21 (금) 오만	01:10-07:15	카이로→무스카트			WY408(4h05m)
	07:15-09:30	공항 → 호텔, 휴식			Grand Millennium
	18:00-21:00	주오만대한민국대사와의 간담			
22(토) 오만	09:00-13:00	현지 시장조사			
	13:00-16:00	OMINVEST 및 Jabreen Capital 간담			
	16:00-17:00	호텔 → 공항			
	19:10-20:15	무스카트→두바이			EK865(1h05m)
	22:35-12:05(+1)	두바이→인천			KE962(8h30m)

## □ 개요

- 일자/장소: '19. 6. 20(목) 10:00~10:45 / Royal Maxim Palace Kempinski
- 발표주제: SME Policie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
- 발표자: 서승원 상근부회장
- 참석자: ICSB 회원국 교수, 기업가 등 100여명

## □ 발표내용 \* 발표자료 별첨

- 중소기업 관련 기관: 중소기업중앙회(민간)와 중소벤처기업부(정부) 존재
  -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(2017)
-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 중요
  - 전체 기업체의 99.9%가 중소기업, 전체 근로자의 90.2%가 중소기업에 근무
  - 그러나 국가 전체 매출의 54%, 전체 수출의 18.5% 만을 차지하는 중소기업
  - 한국이 직면한 소득불평등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때
- 중소기업을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보는 시각의 전환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함
  - ①정부주도→시장주도, ②내수지향적→수출지향적, ③개별기업중심→협동조합중심, ④생산요소투입 증가의 양적성장 중심→기업가정신 함양 등의 질적 성장 중심, ⑤전통제조업 육성 중심→혁신벤처기업 육성 중심
-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선 필수적인 힘 있는 정부부처 필요
  -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(2017)은 매우 적절한 조치
  - 미국의 중소기업청(SBA)도 미국 정부의 직제 상 장관급 부처임.

## □ 질의응답

- Q1) 한국의 소득격차가 OECD 국가 중 11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놀라웠음.  
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?

A1) 여러 이유가 있으나, 과거 정부는 일부 제조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고,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. 그 격차가 근로자 간 소득격차로 이어짐.

Q2) ‘Start-up Leave Program’ 인상적.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?

A2)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창업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며, 아직 모든 기업에 적용되진 않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음.

Q3) 중소기업 간의 협동을 강조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가능할지?

A3)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생산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많음.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알려야함.

## □ 사진



## □ 개요

- 세미나명: Advancing Korea-Egypt SME Cooperation
- 일자/장소: '19. 6. 19(수) 09:00~18:30 / Egypt IDSC
- 주관/주최: KIEP / Egypt Information & Decision Support Center(IDSC)
- 참석자: 윤여철 주이집트대사,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등 30여명
- 발표주제: SME Status and SME Promoting Policies in Korea
- 발표자: 국제통상부 김예민 대리

## □ 발표내용 \* 발표자료 별첨

- 한국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의
  -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다르며,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 고려
- 한국에는 아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음. 분야별 간략히 설명
  - 금융: 신성장기반기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신용·기술보증시스템 등
  - 창업: 창업성공패키지, 창업인큐베이터, 중년창업지원프로그램 등
  - 기술: 공공기관·대기업 제품 구매 전제 기술 개발 지원, 스마트공장설치 등
  - 인력: 대학 및 고등학교 연계 중소기업 우수 인력 확보 지원 사업 등
  - 수출: 수출컨소시엄, 수출인큐베이터, 바이어 상담회 등
  - 판로: 공공구매사업,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,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등

## □ 사진



1. 한국대표단 만찬

□ 개요

- 일자/장소: '19. 6. 18(화) 20:00~21:30 / Paul (Cairo Festival City)
- 참석인원: 김기찬 교수, 김용진 교수, 강명수 교수, 이정희 교수 등 12명

순번	소속	직위	이름	비고
1	가톨릭대학교	교수	김기찬	
2	서강대학교	교수	김용진	
3	한성대학교	교수	강명수	
4	중앙대학교	교수	이정희	
5	카이스트	교수	배종태	
6	송실대학교	교수	송창석	
7	덕성여자대학교	교수	송혁준	
8	서강대학교	교수	임채운	
9	광주광역시	마케팅전문가	김진구	
10	광주관광컨벤션부로	팀장	정정숙	
11	광주관광컨벤션부로	주임	김지우	
12	중소기업중앙회	대리	김예민	

□ 주요 내용

- ICSB Korea가 KICSB로 탈바꿈, 회장직을 맡을 김용진 교수 소개
  - 중소기업학회로부터 독립된 국제중소기업학회(회장: 김기찬)와 세계중소기업 협의회(ICSB) 총회 참석을 위한 한국대표단(KICSB, 회장: 김용진)이 급히 결성(19.4.30)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여에 감사 (김기찬 교수)
- 내년부터는 기업가 및 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를 더 강화하고자 함
  - 지금까지는 학회의 성격이 강해서 교수·연구자들 중심으로 총회가 이뤄짐
  - 내년부터는 기업가 및 기관 관계자들 등 경영 실무진을 초청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격을 갖춘 총회로 발전시키고자 함 (김용진 교수)

- 제66차 ICSB 총회(2021년)를 광주시 ‘김대중컨벤션센터’에서 개최코자 함
  - 광주시는 여러 국제대회를 유치할 통해 광주시 홍보 노력 진행 중
  - 금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에서 유치할 예정임
  - \* 제65차 총회(2020년)는 프랑스 파리 개최 예정이나, 추후 변경 가능 (기타 후보: 美 워싱턴)
  
- 광주시, 금년 11월 ACSB(Asian Council for Small Business) 총회 주최 예정.  
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(정정숙 팀장)
  
- 광주가 ICSB 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
  - ICSB 총회에는 매년 약 85개국의 회원사들이 참가를 하는데,  
회원들이 인천공항 도착 후 다시 광주로 이동함에 따른 불편 발생
  - ‘김대중컨벤션센터’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 
않아 유치가 쉽진 않을 것. 행사장 주변 호텔·인프라가 잘 갖춰진 후에  
유치활동을 해야 승산이 있음.

□ 사진



## 2. ICSB 사무국과의 간담

### □ 개요

- 일자/장소: '19. 6. 20(목) 20:00~22:00 / Nile Maxiem
- 참석인원: 서승원 부회장, 김용진 교수, Ahmed Osman 등 6명

순번	소속	직위	이름	비고
1	중소기업중앙회	상근부회장	서승원	
2	중소기업중앙회	대리	김예민	
3	서강대학교	교수	김용진	
4	ICSB	차기회장	Ahmed Osman	
5	ICSB	사무총장	Ayman Tarabishy	
6	TVET Egypt	-	-	

### □ 주요 내용

- 오는 11월 서승원 부회장님 이집트 재방문,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소개 요청
  - 금일 서승원 부회장님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
  - 한국은 이집트에게 경제성장에 있어 많은 교훈을 주는 나라
  - 오는 11월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세미나에 초청드리니,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등 경험을 공유해주시길 요청 (Ahmed Osman)
- 이집트 기술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TVET\*,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 강화 희망
  - \* TVET : Technical & Vocational Education & Training Reform Program

#### 〈 상근부회장 의견 〉

- 11월 세미나 건은 일정 검토하여 참석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
- TVET에서 교육시킨 인력을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집트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

### □ 사진



### 3. 주오만왕국한국대사와의 만찬

#### □ 개요

- 일자/장소: '19. 6. 21(금) 18:00~21:00 / 주오만왕국한국대사관저
- 참석인원: 김창규 대사, 서승원 부회장, 김예민 등 5명

순번	소속	직위	이름	비고
1	주오만왕국한국대사관	대사	김창규	
2	중소기업중앙회	상근부회장	서승원	
3	중소기업중앙회	대리	김예민	
4	East Bridge	Chairman	Kevin Lim	
5	East Bridge	Director	Mark Kim	

#### □ 주요 내용

- 오만은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매우 적합한 국가
  - 신규 진출 외국기업에게는 30년간 세금(법인세)이 부과되지 않음  
단, 오만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은 유의할 사항임
  - 오만은 복잡한 중동의 정세 속 중립국의 지위 유지한다는 장점 있음  
이란, 사우디, 카타르, UAE 등이 모두 이어지는 요충지임
  - 성품이 온화하며, 외국어(영어)에 능통한 오만인  
역사적으로 상인들이 살던 무스카트의 시민들은 거의 모두 영어에 능통  
치안이 우수하며, 매우 안전한 국가임
- 한·오만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 진출 계기 마련 권유
  - 한·오만통상장관 회의가 10월 말 진행 예정  
우리 측에서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며,  
동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할 예정
  - 11월에는 무역협회가 무역사절단을 꾸려 오만을 방문할 예정  
단, 10월말 양국 통상장관 회의와 일정이 밀접하여,  
이 행사를 내년 1월 혹은 2월 초 추진으로 조정 중

○ 중기중앙회, 내년 2월 중소기업 대표단 구성 후 오만 방문 요청

- 금년 말 행사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내년 설 이후 2월 즈음 중앙회장님께서 문창섭 회장님과 함께 시장개척단을 꾸려 오만에 방문하는 것을 권유
- 시개단 구성 시에는 오만의 적합 업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
  - 오만을 비롯한 중동에선 한국의 의료, 헬스케어, 스마트시티 기술에 관심 높. 현지는 한국의 우수 시스템 도입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고려해주길 (ex. 삼성서울병원, 급증하는 중동 환자 대응 위한 아랍어 서비스 제공)
- 아울러, 시개단 파견 시에 함께 진출할 인근의 유망국은 아래와 같음.
  - 중동: UAE(두바이), 사우디아라비아 / 북아프리카: 모로코, 알제리, 이집트

○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로 오만의 '정진희' 대표 추천

- 오만 내 성공적인 한국 중소기업 Korea CNO Tech. Co. Ltd. (대표: 정진희)은 수류탄을 제조하고 판매
- 이 분을 교두보로 삼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만에 진출할 수 있도록,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로 추천함

○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'中企 신입사원 해외지사장 파견사업' 제안

-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임
-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지만,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아이러니
- 청년들을 해외지사장으로 보내는, 즉 '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해외지사장 파견사업'이 추진된다면, 우수한 젊은 인력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
  - '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해외지사장 파견사업'(안)은, 중소기업이 신규 사원을 약 1~2년의 국내 트레이닝 후 바로 해외지사장으로 파견시키는 것을 의미함.
- 일례로, 소위 일류 대학 졸업생들은 제이에스티나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나, 제이에스티나의 두바이 지사장으로서는 일할 것임
- 1만개의 기업이 각 10개의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으면, 총 10만개의 청년을 위한 해외지사장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고, 그만큼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음

○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길 요청

- 중소기업 관련 이슈는 방대하여 그만큼 중앙회의 역할도 방대하고 다양
- 중기중앙회가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역할을 보다 강화해주길 바람
  - 노동 문제는 경영자총협회에 넘기고, 수출·해외진출 지원역할을 강화

< 상근부회장 의견 >

- 10월 통상장관 회의와 11월 혹은 내년 초 무역사절단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에 오만 진출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
  - 내년 2월로 일정이 조정될 경우, 본회도 예산상황을 감안하고 검토하여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와도 함께 연계하여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- 중소기업 신입사원 해외지사장 파견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
  -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보겠음
- 해외민간대사로 추천해주신 정진희 대표에 대해서는 위촉 여부 검토해보겠음
- 중앙회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단체인 만큼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□ 사진



#### 4. OMINVEST 및 Jabreen Capital과의 오찬

##### □ 개요

- 일자/장소: '19. 6. 22(토) 13:00~16:00 / Royal Opera House Muscat
- 참석인원: 김창규 대사, 서승원 부회장, 김예민 등 8명

순번	소속	직위	이름	비고
1	주오만왕국한국대사관	대사	김창규	
2	중소기업중앙회	상근부회장	서승원	
3	중소기업중앙회	대리	김예민	
4	East Bridge	Chairman	Kevin Lim	
5	East Bridge	Director	Mark Kim	
6	OMINVEST	Deputy CEO	Shahid Rasool	
7	Jabreen Capital	Chairman	Sheikh Khalid Al Kahlili	
8	Jabreen Capital	Deputy CEO	Badar Al Sanfari	

##### □ 주요 내용

- 중동의 스위스라고도 불리는 오만에 온 것을 환영
  - 오만은 중동의 모든 국가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, 정치적 중립을 지킴
  -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지역의 유통센터 역할을 함
- OMINVEST는 1983년 설립된 오만 내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
  - 업무분야(6개)는 은행, 보험, 임대, 부동산, 투자은행, 금융투자이며, 자회사(4개) 및 계열사(9개) 보유
- Jabreen Capital은 OMINVEST의 금융투자를 전담하는 자회사
  - 투자자산 약 USD700백만(약 7,850억원)을 운용함
  - 투자자산은 공모투자 80%, 사모투자 20%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, 투자지역의 경우 오만 81%, 오만 제외 GCC국가 19%로 이뤄짐
    - East Bridge(대표: Kevin Lim)와의 관계를 계기로 한국 中企에 관심
- 오만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정부 및 중앙회와 협력할 분야 많아
  - 오만 경제특구 회장단 및 정부관계자들, 양국 협력에 대한 논의 희망

○ 오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한민국

- 오만의 수출상대국 1위는 중국, 2위는 한국임. 주요 수출품은 가스
- 양국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기 바람

○ Jabreen Capital, 양국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행사 후원 의지

- 본사는 비즈니스 포럼 등 행사 후원 명목으로 매년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음. 대사님과 서승원 상근부회장님의 결정으로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행사가 치러진다면 기꺼이 돕겠음

○ 담수화 처리비용이 낮은 기술을 가진 한국 중소기업은 오만서 성공할 것

- 오만은 일 년 중 비가 오는 날이 열흘 미만인 물 부족 국가로,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술이 없었다면 이곳엔 사람이 살지 못하였을 것
- 담수화 처리 기술이 뛰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오만에 진출하게 된다면,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

〈 상근부회장 의견 〉

- 중동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(두바이)가 먼저 생각남  
많은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임. 그만큼 오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.
- ‘왜 오만에 관심을 갖고 진출해야하는지’ 구체적인 정보를 보내주길 요청
  - 그 정보를 본회 회원사인 조합 및 개별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것임 \*자료별첨
- 오만 정부 관계자들이 상세 협력 방안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
- 담수화 사업은 좋은 제안. 관련 단체와 오만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해보겠음
- 김대사님도 본회의 오만 방문, 시개단 및 포럼 개최를 제안하셨음
  - 본회가 오만과 행사를 하게 되면, Jabreen Capital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하겠음

□ 사진

